

趙靖의 일기를 통해 본 전쟁 속 일상과 가족

김 정 운*

- I. 머리말
- II. 피란 생활의 구성원
- III. 생계 마련과 의례 활동
 - 1. 생계 마련
 - 2. 의례 활동
- VI. 친족 네트워크의 사회적 작동
- V.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시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였다. 학문과 국가운영 전반에 도약이 있었다. 반대로 위험도 컸다. 연이어 외적이 침략하였다. 전쟁으로 많은 것이 훼손되었고, 또 새롭게 만들어졌다. 본고는 이 시기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았다. 대상은 조정(趙靖, 1555~1636)이다. 조정은 경상도 상주에 살았고, 과거(科擧)에 합격하고 관직을 지낸 이력이 있다. 그리고 그는 전쟁기간에 일상생활을 기록한 일기를 남겼다.

본고는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피란 생활의 단위와 생활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 jeongun@knu.ac.kr

방식이다. 피란 생활의 단위는 바로 생존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쟁 중에 생계를 마련하는 방식과 의례 활동이다. 조정은 식량을 얻기 위해 걸어서 산을 넘어 관창(官倉) 앞에서 밤새 기다리면서, 이전에 한 번도 해 본적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런 형편에서도 선조의 제사를 위해서 생선과 국을 준비하였다. 그에게 의례는 생존에 관계된 것이었다. 셋째, 친족 네트워크가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조정은 의병에 가담하였고, 의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원이 되었다.

◆ 주제어

조정(趙靖, 1555~1636), 『임진일기(壬辰日記)』, 혼인, 가족, 의병(義兵)

I. 머리말

조선시대에서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는 변화의 시기였다.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라고 하는 이 시기에 학문과 국가운영 방식은 전반적인 도약이 있었다. 반대로 위험도 컸다. 외적이 연이어 침략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 충격과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은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많은 것이 훼손되었고, 또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고, 또 이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나. 이 시기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전쟁은 위기 상황이다.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작동하는 때이다. 여기서 생존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볼 수 있다. 이때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공동체이다.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가족의 일상생활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16세기 후반은 기존 질서에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전쟁은 가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시기 가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다음 세 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피란의 단위와 생활 방식이다. 여기서 그들이 인식하는 생존을 위한 최소 단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쟁 속 일상에서 생계를 마련하는 방식과 의례 활동이다. 식량을 얻기 위해 걸어서 산을 넘어 관창 앞에서 밤새 기다렸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듭 요청해서 곡식을 빌려와야 했던 상황에서도 조정은 생선과 국을 준비해서 선조의 제사를 지냈다. 의례는 집안 구성원의 결속을 강화하고 계통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란 속에서 수행하는 의례에서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셋째, 친족 관계의 작동 방식이다. 조정은 지역의 사대부들과 함께 의병을 조직해서 활동하였다. 사회적 활동에서 혼인을 통해 맺어진 친족관계는 중요한 작동을 하였다. 이것으로 혼인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해 본다.

본고는 조정의 일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¹⁾ 조정의 일기를 보면,

1) 조정의 일기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는 상주박물관에 소장된

1592년 4월 14일 왜적이 동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날 길에서 대구 인근에서 왜적에게 크게 패하고 돌아오는 상주목사와 함창군수를 만났다.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조정은 가족(家屬)을 거느리고 피란에 나섰다. 피란하는 동안 조정의 일상은 가족들의 생존에 애태우며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으로 가득하였다. 조정에게 가족은 무엇인가. 함께 생활하고 먹고 살아가는 단위를 말한다. 조정의 가족은 가(家)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조정의 피란 생활을 통해서 17세기 경상도 사대부에게 가족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피란 생활의 구성원

조정(趙靖, 1555~1636)은 본관이 풍양(豐壤)이고 자는 안중(安中), 호는 검간(黔澗)이다. 경상도 상주 장천에 살았다. 1599년 천거로 참봉이 되었고, 1605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의 선대는 상주에 살았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증조부 조윤영(趙允寧)은 춘천부사를 지냈고 서울에서 살았다. 할아버지 조희(趙禧)는 사직이었고, 다시 상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²⁾ 아버지는 조광헌(趙光憲, 1535~1588)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 홍윤취(洪胤崔)의 딸이다. 조정은 18세가 되던 1572년 혼인하였는데, 아내는 경상도 안동에 거주하는 의성김씨 김극일(金克一, 1522~1585)의 딸이다. 이런 관계에서 조정은 김성일(金誠一, 1538~1592)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³⁾ 이런 이력을 보면, 조정은 조선에서

필사본으로, 표지 제목은 『壬辰日記』 上·下 2책이다. 『임진일기』는 1592년 4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록이다. 훼손된 부분의 글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정의 『검간집』에 수록된 「진사일록」을 함께 확인하였다. 조정의 일기에 대한 판본 비교는 김종태의 「黔澗 趙靖의 辰巳日錄 研究」(성균관대학교 한문과 석사학위논문, 2009, 30~33쪽)를 참고하였다.

2) 정재훈, 「『보물 제1003호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1.임진일기 상·하』 해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관료였으며, 상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 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1592년 4월 이전까지 조정은 상주와 안동 처가를 오가면서 다섯 자녀와 함께 평화롭게 생활하였다.

조정의 부친 조광헌과 모친 남양홍씨 부부는 조정-조익(趙翊, 1556 ~1613)-딸-딸-조굉(趙煇, 1563~1639)-딸-조준(趙竣, 1568~1605)의 7남매를 두었다.⁴⁾ 조정은 장남으로 1555년 8월에 태어나서 18세가 되 던 1572년 혼인을 하였다. 1587년에 조부상을 당하였고, 1588년 부친 상을 당하였다. 1592년 조정은 38세였고, 어머니와 동생들 가운데 일부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상주에서 생활하였다.



그림1. 경상도 상주 장천 일대 지도

조정은 1592년 4월 14일 관의 첩정을 보고 왜적이 동래에 침략한 것 을 알게 되었다. 조정은 며칠 동안 걱정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였다. 18 일에 국경의 여러 진들이 차례로 함락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렇지만

3)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시황, 「검간 조정 선생의 생애와 사상」 『동방한문학』 16, 1999; 권태을, 「검간 조정의 한국문화사적 위상」, 『상주문화』 23, 2013; 김유희, 「검 간 趙靖선생의 불친위 제사에 나타나 문중의식」, 『상주문화』 19, 2009.

4) 豐壤趙氏世譜所 編, 『풍양조씨세보』, 2006.

봉화는 계속 1거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정은 무엇인가 잘못 되어 가고 있다고 의심하였다. 19일 동생 조익이 상주성에서 전한 소식은 밀양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하였다. 조정은 이제 사정이 급해진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하루를 더 보내었다. 20일에 상주목사 김해(金滌, 1534~1593)를 만난 조정은 석전(石田) 땅에서 수십여 명의 왜적과 교전하였다고 들었다. 이어서 만난 함창현감 일행이 밥을 구하자 집으로 맞이하여 술과 밥을 대접하면서 함창과 문경의 군사가 모조리 죽임을 당해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조정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땅을 파서 묻어두고 신주는 께짝에 담아 깊이 묻어 두고 피란에 나섰다. 다음은 당시 조정 일행의 사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592년 4월 20일 날이 저물어 비중(裴仲一, 조익)은 어머니를 모시고 막내 여동생, 서조모(庶祖母)와 함께 먼저 출발하여, 상주 서쪽 북장산(北長山)으로 향하였고, 처자식들도 그를 따라 같이 갔다. 나와 둘째 아이는 남아서 기원(基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출발해서 저녁에 북장사(北長寺)에 들어갔는데, 일행이 모두 무사히 도착해 있었다.⁵⁾

조정은 조익에게 어머니와 여동생, 서조모를 모시고 북장산으로 가도록 하였고, 자신의 처자식들도 함께 보냈다. 자신과 둘째 아들은 남아서 장남 조기원을 기다렸다. 조기원은 닷새 전인 4월 15일 선산에 사는 최산립(崔山立, 1550~?)의 집에 혼인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별히 빨리 귀가하도록 연락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평소 혼례 일정이라면 이날 돌아올 것이었다. 조정은 늦게 온 기원을 데리고 뒤따라 피란에 올랐다.

조정 부부는 5남 2녀를 두었는데, 1592년 당시 4남 1녀가 있었다. 조정이 뒤늦게 도착한 북장사에는 상주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사람들

5) 『壬辰日記』上, 1592년 4월 20일 當晚裴仲先奉慈氏及季妹與庶祖母先發 將向州西北長之山. 妻屬亦隨而偕去. 吾與次兒 留待基遠之還 當午乃發 暮投北長寺 則一行皆無事已到矣.

까지 백여 명이 모여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북장사에 도착한 조정은 가솔들을 점검하였다.

1592년 4월 20일 우리 일행은 어머니 이하 서조모, 막내 여동생 및 나와 익(翊, 1556~1613), 평(玢, 1563~1639), 그리고 기원(1574~1652), 영원(榮遠, 1577~1640), 유원(裕遠, 1577~1639), 홍원(弘遠, 1583~1606), 형원(亨遠, 1585~1643), 무의(無儀) 등 모두 12인(人)이며, 늙고 약한 노비 등 모두 50여 구(口)였다.⁶⁾

북장사에서 모인 조정의 일행은 모두 50여 명이였다. 어머니, 서조모와 여동생, 두 남동생과 자신의 4남 1녀를 합해서 모두 12인이였다. 조정의 아내 김씨도 함께 하였으나 기록하지 않았고, 둘째 조익은 1589년 두 번째 아내 연안이씨의 상을 치룬 후에 다시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조정은 아내를 빼고 모두 기록한 것이다. 또 셋째 조평은 처자식이 처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북장사에 도착하였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하루를 묵고 22일 다시 출발해서 서쪽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가서 구만촌 김윤식의 집에 머물렀다. 이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 가운데 노곡에 사는 숙모도 있었다. 조정은 구만촌에서 이들을 묵으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정은 왜적의 기세도 생각보다 극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곤궁하게 지내느니 집으로 가겠다고 판단하고 가솔들을 이끌고 다시 북장산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병졸들의 처참한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는 참혹하였다. 지금 곧 왜병들이 산으로 올라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짐바리는 두고 몸부터 피하였다.

1592년 4월 25일 나와 비중(斐仲)은 어머니와 여러 가족(家屬)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 길을 택하였다. 앞에 있는 산을 곧장 넘어가려니 산의 높이는 만 길이

6) 『壬辰日記』上, 1592년 4월 20일 我一行 慈氏以下 庶祖母季妹 及余及翊玢基遠榮遠裕遠弘遠亨遠無儀竝十二人 下屬奴婢老弱 竝五十餘口矣。

나 되고 깎아지른 듯 가팔라 한 치를 나아가면 한 자를 물리나며 열 걸음을 가면 아홉 번 넘어졌다. 어머니와 처와 아이들은 힘이 다해 지치고 발이 부르터서 거의 보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앞에서는 당겨주고 뒤에서는 호위하여 정오를 넘겨서야 비로소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가까스로 죽과 물을 마시니 오래지않아 기운이 되 살아났다. 이윽고 말을 타고 산길을 따라서 가니 너무 험하지는 않아서 아녀자들은 모두 말을 탔고 나와 두 아이는 걸어서 따라갔다.⁷⁾

그야말로 절박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저녁 늦게 여우굴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아침 여우굴 앞산 바위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입구를 막고 숨었다. 조정은 동굴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다. 왜병이 주변 산골짜기를 살살이 뒤횈다는 소문에 다시 서쪽으로 출발하였다. 밤새 걸어서 새벽 무렵에 여우굴에서 30리 되는 곳에 도착하였다. 산 정상에 토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전부터 피란하던 곳으로 짐작하였다. 다음날 다시 북쪽 고개를 넘어 10여리를 가서 문경 노곡에 도착하였다. 조정은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기로 하였다.

7) 『壬辰日記』上, 1592년 4월 25일 我等業已到此 慈氏及妻孥季妹 俱未健步 倉卒當變 莫知所爲 不得已命奴僕徐輸卜馱 吾與棊仲 奉慈氏及諸屬取路壑谷 直越前山 山高萬仞 峻急如削 寸進尺退 十步九僵 慈氏及妻屬 力盡足痠 幾難保全 前挽後擁 過午始得踰嶺 促飲糜水 然後氣暫蘇差 俄而鞍馬 迫到山路 亦不甚險巖 故內行皆乘馬 吾與兩兒 徒步以隨 初更得投狐洞 假宿於村氓之家.



그림2. 피란 경로: 집(상주 장천, 양진당)->20일 북장사->22일 구만촌(서만리)
->25일 호동(예이리)->27일 서쪽 골짜기(하송리)->28일 노곡(대전리)

다음날 아침 일행을 점검하니 모두 50여 명이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자니 소란하여 피란하는 의미가 없을 지경이었다. 함께 있던 김광엽(金光燁, 1561~1610)이 언짢아하면서 거처를 분리하고자 하여 각자 이동하기로 하였다. 당시 조정의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1592년 4월 29일 식사를 마친 뒤에 마침내 각자 떠나기로 계획을 정하고서 행장을 점검해 보니 남은 양식이 겨우 밥 한번 지을 정도였다. 어머니께서 고맙게도 쌀 5말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는 17명이 4~5일치의 양식으로 쓰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곧 딸린 식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숨었다.⁸⁾

조정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쌀 다섯 말을 들고 식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조정은 아내와 기원, 영원, 흥원, 형원, 무의를 데리고 종

8) 『壬辰日記』上, 1592년 4월 29일 晴 一行上下竝五十餘人 所在不靜 殊無潛避之意 正字深有慍色 欲余分處 吾亦有此計久矣 只以出家已久 糧物全乏 蠢然諸雛 多至四五 所率奴婢 亦皆孱劣 俱不可以依倚行李 以此心懷尤惡 罔知所處 却悔當初輕作遠遁之計矣 與其中道狼狽 僵死於窮谷之中 不若堅坐故里 效死於先廬側之爲愈也 食後乃決各行之計 點檢行囊 餘糧僅支一炊矣 慈氏分惠五斗之米 此足以供十七人四五日之糧 仍率諸累登山潛伏 山亦蘆谷之地 而洞府深密 谷谷分處 無異他山矣.

들을 포함하여 17~18명이 움직이게 되었다. 이들이 바로 조정의 가족이었다.⁹⁾ 어머니에게 얼마간의 양식을 받은 조정은 깊이 감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조정은 모친과 거처를 나누었다. 조정의 어머니 남양홍씨 일행은 두 아들 조익과 조굉, 막내 딸, 조익의 아들 유원, 그리고 시부 조희의 첩, 그리고 종들로 구성되었다. 어머니 일행과 분리한 조정은 이제부터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해야 했다.

며칠 후에 단밀에 사는 서이모와 김운룡 내외가 조정 일행이 있는 동네로 왔고, 다음날은 얼족 김순생 부자도 이웃으로 왔다. 이 동네에서 조정은 안정을 찾아갔다. 이제 조굉은 처가에서 처자식을 데려왔다.

1592년 5월 13일 아우 굉(玆)이 그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 가서 모두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권씨(權氏) 집안은 전날 온 가족이 영사목(永思木)의 바위가 있는 물가의 우거진 숲 속으로 함께 피난하였다가, 다시 왜놈 일행을 만나 가져온 것을 모두 탈취를 당하였다. 권여림(權汝霖)과 권여심(權汝深)도 역시 모두 붙잡혔다가 도중에 애원하여 돌아올 수 있었고, 여러 부녀자들은 겨우 사로잡히는 것을 모면했다고 하니, 이는 불행 중 다행이다.¹⁰⁾

당시 조굉의 처자식은 처가에서 살고 있었다. 조굉은 급하게 피란길에 올라서 처자식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처가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데리고 왔다. 조굉의 처 권씨 집안은 온 가족이 왜적을 만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되었다. 아마도 전쟁이 아니었다면, 조굉 부부는 처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9) 조익, 『可畦集』 권7 「辰巳日記」 壬辰 四月 ○二十八日。與審仲。先生之弟。同上後峴。則避亂之人。遍滿絕頂。或云。賊徒流入黃嶺云。夕陪慈氏。踰後嶺。宿于蘆洞金莫金家。閭慶地也。上下六十餘人。所寓不靜。脫有事變。則萬無俱全之理。莫如分處。而伯氏不如吾意。且糧物全乏。莫知攸爲。與其中道狼狽。僵死於深山窮谷之中。不如堅坐故里。效死於先廬側之爲愈也。人事至此。言可痛心。豈料昇平之世。遭此喪亂。甚至於骨肉之不相保也。

10)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13일 玆弟往尋其妻孥所在 竝爲挈來于此 權家學族 前日俱避于永思木石泚林莽之間 再遇倭奴一行 所齋盡被奪取 汝霖汝深 亦皆被執 中路求哀得還 諸婦人艱得免擄云 此不幸之一幸也. 夕雨.

없었다. 전쟁 경험은 이후 생활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혼례와 출산과 양육은 주로 처가에서 이루어졌다.¹¹⁾ 문제는 조경 부부의 경우와 같이 갑자기 전란이 발생하면서 처자식과 헤어져 생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 경험은 거주방식과 가족관계에 중요한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연이어 전란을 겪게 되자 부부와 처자식이 함께 생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음은 조정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병자년 전란 때를 기록한 것이다.

1637년 1월 17일 캄캄해져서 둘째 아이가 머느리를 데리고 왔다. 지금 난리를 당했으니, 어느 겨울에 예절을 차리겠는가? 다만 아들 머느리를 본 것만으로 충분하다.¹²⁾

위 사정은 다음과 같다. 예안에 살던 김영(金瑛, 1577~1641)의 아들은 1636년 11월에 성주에 사는 허씨와 혼례를 하였다. 통상 혼례를 하고 1년에서 2년이 지난 후에 아내가 시집에 처음 오는[新行]데, 이번은 그럴 수가 없었다. 김영의 머느리 집안에서는 함께 피란을 하자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¹³⁾ 김영은 난리 가운데 예를 갖추지 못하는 사정을

11)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1월 15일 禮曹上服制式. 啓曰: "前朝舊俗, 婚姻之禮, 男歸女家, 生子及孫, 長於外家, 故以外親爲恩重, 而外祖父母, 妻父母之服, 俱給暇三十日. 至本朝尙仍其舊, 親疎無等, 實爲未便. 乞自今, 外祖父母大功, 給暇二十日, 妻父母小功, 十五日." 從之. 前此, 命禮曹議親迎之禮, 禮曹詳定以聞, 然事竟不行. 조선전기의 혼인제도에 관한 연구는 장병인의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일지사, 1997)을 참고할 수 있으며, 조선후기 혼인방식과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는 김정운의 「17~18세기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의 친족관계 연구-일기에 나타난 혼인과 제사를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를 참고할 수 있다.

12) 『계암일록』 1637년 1월 17일 晴. 遣奴輩道次. 爲星山行也. 申峻向巡營. 以戶籍軍事. 委諸判官洪有炯. 洪以催督爲能事. 急如湯火. 鞭扑交亂. 一境盡空. 且戶籍爲軍. 甚爲不均. 尤不可言矣. ○昏黑. 次兒挈婦來. 時方亂離. 奚暇治禮節. 只見當身足矣.

13) 『계암일록』 1636년 12월 23일 明早遣奴千遇于星山姻家. 以議避亂. 且欲率來也. 12월 29일 晴甚寒. 早朝千遇奴來. 昨宿佳水村也. 星山姻家. 欲送新婦. 同此避亂. 次兒入義所. 義號雖舉. 而凡事齟齬. 時無頭緒. 可慮. 1637년 1월 6일 江右之人. 皆已避出. 而近地隣境. 亦爲荷擔. 此間獨晏然不爲之計. 未知何如. 次兒明

안타깝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조정과 김영의 시대에 두 차례의 전쟁 경험은 이후 사대부의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조정은 피란 생활에서 안정을 찾게 되자, 가족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조정은 관음사 수락암으로 가서 승려 보정을 만나기로 하였다. 조정이 그를 찾은 이유는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1592년 5월 16일 지금 멀리까지 찾아온 것은 승경을 찾아 나서기 위함이 아니다. 어린 아이 들을 보정선사에게 맡기려고 하였으니, 하루하루 위태로운 목숨을 보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이 다섯 아이를 거느리다가 혹은 급한 번고라도 생기면 모두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식 들을 떼어서 나누어 둔다면 앞으로의 생사에 비록 어느 쪽이 유리할 지는 기약할 수는 없으나 눈앞에 경황이 없을 때에는 혹은 조금의 근심이나마 줄이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¹⁴⁾

조정은 아들 들을 평소 친분이 있던 승려 보정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모든 가족이 함께 있다가 한꺼번에 화를 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이었다. 식솔들이 함께 있는 것이나, 식솔들이 떨어져 지내는 것은 모두 생존하기 위해서였다. 조정이 아들 들을 맡기고 돌아온 곳에는 이모 가족이 이웃에 와 있었다.

1592년 6월 1일 식사를 마친 뒤에 궁기(宮基)로 가보니 이모 가족이 이미 어제 화산(華山) 정상의 상암(上庵)으로 거처를 옮겨와 있었다. 이모와 홍씨 외삼촌[洪舅], 창녕(昌寧) 형수, 양우(良遇) 형수, 옥산(玉山) 누이, 국신(國信) 형수, 사행(士

明間。亦欲往星山。歸其婦來。1월 9일 食後。次兒入義所。乘夜回。明欲往星山挈家【時勢使然所不得已】來也。1월 10일 晴而寒。次兒往星山。數奴二馬從。1월 17일 昏黑。次兒挈婦來 時方亂離 奚暇治禮節。只見當身足矣。

- 14)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16일 晴 聞化寧縣賑租親進 中道聞還止 旋向關音寺水落庵 得見寶品禪師 師乃長川人 而禪林之拔萃者也 素聞水落勝致 而未曾一玩 今因亂離 偶然來覽 懸流千仞 連筒注引 以供庵僧之用 廬山朴淵 恐未必遠過是瀑 憂鬱之中 忽覺有出塵思想也 今之遠尋 非爲探勝也 蓋欲托兩稚子於品師圖保朝夕之性命也 流離之中 率此五雛 脫有急變 萬無俱全之理 得減兩息分處 則前頭生死 雖未必彼此之利害 而目前倉皇之際 冀或減一分之憂也 人事至此 言可痛心 豈謂昇平之世 猝遇喪亂 甚至父子之不相保也 師亦聞言惻怵 見許無忤 極慰極慰 仍宿庵寺 師炊黍款接 特出常情 雖曰素雅之人 而亦不易之事也。

行) 형수 등 여러 친척들이 각각 가솔을 데리고 이곳에 모두 모여 서로 안부를 나누니, 마치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과 같았다. 각자 난리 중에 겪은 고충을 이야기 하였는데, 구사일생(九死一生)하여 오늘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불행 중 다행이 아니겠는가. 비애가 교차하여 자못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¹⁵⁾

오랜만에 외가 일족을 만나게 되자 조정은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었다. 이모와 외삼촌, 누이와 형수 등 외가 사람들은 각기 가솔을 데리고 와 있었다. 조정은 외가 식구들이 모이자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이것은 평소 그와 외가의 긴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1592년 7월 3일 이른 아침에 가족(家屬)을 거느리고 노곡의 옛 주인집으로 돌아와 머물렀다. 저녁에 듣건대 왜구가 다시 가에 쳐들어가서 30여 가를 분탕질 하였다고 한다. 광주(光州)이모가 화산에서 노곡으로 옮겨와 지내었다. 친속(親屬)들이 한곳에 모이니, 위안이 되고 위안이 된다.¹⁶⁾

조정이 말하는 광주이모는 김우굉(金字宏, 1524~1590)의 아내이다. 김우굉은 성주 사람으로 본관은 의성이고, 광주목사를 지냈기 때문에 조정이 광주이모라고 하였다. 조정 어머니 남양홍씨의 세 자매 가운데 맏이였다. 큰이모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친정에서 생활하다가 피란에 나섰고, 부모의 신주를 모시고 있었다.¹⁷⁾

며칠 후에 조정 일행이 머물고 있는 달전에도 왜병이 닥쳤다. 아내와

15) 『壬辰日記』上, 1592년 6월 1일 晴 食後往宮基 則姨母閨門 已於昨日 移寓于 華山上 頂上庵矣. 姨母洪舅及昌寧兄嫂 良遇嫂玉山妹 國信嫂土行嫂諸親 各率其家累 畢會于此 相與蘇紓 有同再生之人 各說亂離中艱苦 十生九死 得至今日 重見面目 豈非不幸之幸也 悲哀交激 殊不能定情矣.

16) 『壬辰日記』下, 1592년 7월 3일 晴 早朝率累 還寓蘆谷舊主人之家 夕聞倭寇復入加恩 焚蕩三十餘家云 光州姨母 自華山移寓蘆谷 親屬得會一處 深慰深慰 未伏.

17) 『壬辰日記』下, 1592년 6월 16일 晴 明日乃外王母初祥也. 繼舅進士公及姨母光〇〇奉主來復〇〇故略備白酒鷄魚等物 偕審仲. 今日前期〇〇外王母壽至八十五歲 年前捐館 不見此喪亂之苦 想於神道無憾 而不肖孱孫 獨延頑命 既失所恃逢此百罹生之不振 痛哭何極. 言念及此不若死而無聞見之爲愈也.

자식들, 어머니와 동생들, 이모 일행은 급히 자리를 옮겨야 했고, 조정 부부는 어머니 일행과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외가 식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이렇게 산중 생활을 하게 된 조정은 시간이 갈수록 서글픈 사정에 한탄이 늘어갔다. 이런 처지에서 조정은 임하에 있는 처가 생각이 간절하였다.

1592년 6월 18일 나는 피곤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식량이 바다나 위급한 상황이니, 가족을 이끌고 임하(臨河)로 들어가려는 생각이 매우 간절하다.¹⁸⁾

이런 가운데 조정은 거창에 있는 처숙부 김성일을 만나야 했다. 조정이 거창에 가는 이유는 의병 활동을 논의하는 것과 함께 처가 일족 이의술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수소문 끝에 조정은 이의술을 아내를 만났는데, 그 처지가 곤궁하기 짝이 없었다. 조정은 그들에게 상주로 와서 함께 임하로 가자고 약속하였다.¹⁹⁾ 먼저 그 아들을 데리고 왔고, 남은 가족들은 김성일의 도움으로 노곡으로 올 수 있었다.²⁰⁾ 조정이 노곡으로 돌아오니 광주이모 일행은 노곡에 와 있었고, 어머니는 영대암에 잘 지내고 계셨다. 이제 조정은 처가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조정은 9월 그믐에 식술을 이끌고 출발하였다.²¹⁾ 한 여름 더위에 지쳐있던 피란 생활은 어느덧 추위와 싸우게 되었다. 10월 1일에 예천에서 묵고, 다음날 풍산을 지나서 안동에 도착하였다. 안동에 도착하니 아

18) 『壬辰日記』下, 1592년 6월 18일 吾方以累煩 糧盡爲急 欲挈家眷 入去臨河之計甚切 而賊勢不息 道路多阻 茲未得決之 何悶如之 囊儲垂盡 鹽醬已乏 雖或避害於賊手 而將至饑死 生理無由 莫知所措 奈何奈何.

19) 『壬辰日記』下, 1592년 9월 5일 晴 平明 再見李妻 約以月內上來蘆谷吾所寓之地 偕往臨河 先挈其胤子而來 此兒 曾亦被擄頭髮盡削矣.

20) 『壬辰日記』下, 1592년 9월 29일 晴 早發 到愚谷金夢良家炊朝飯 長川近卓爾 亦來在其處矣 夕還蘆谷 則義述家屬 勿勿罕山中 昨已來到矣 李妻欲來者久矣 糧糶從 俱不得措 適鶴峯令公 移拜右節 今到居昌爲發人馬糧饌 使之往訪護送 故得憑其力今始發行. 義述養祖母繼母及其弟胤武 亦與偕來矣 昏下雨.

21) 『壬辰日記』下, 1592년 9월 30일 晴 治行具 與金山行同發 夕投鹽谷 則風雪交作 寒烈斗甚 夕飯後 冒昏作行 比到龍宮邑內 夜始向明矣 當此天寒 非但無衣 代步亦闕 吾與英兒命兒等 皆徒步以行 其苦不可言 奇兒則緣事故 留在蘆谷矣.

내의 사촌 김용(金涌, 1557~1620)이 나와 맞아주었다.²²⁾ 다음날 임하에 도착하였더니 장모 이씨는 4월 23일에 피란을 떠나셨고, 남은 식구들은 무탈하였다. 왜적들이 지나간 집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집은 온전하였다. 다음날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살아서 만난 것으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임하에 도착하자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전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처자식은 처가에서 지낼 것이었다.

이런 극한의 경험을 하면서 이들은 가족과 친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나. 같은 경험을 한 인동사람 장현광으로부터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장현광이 1600년 경 족계를 중수하고 만든 규약이다.

1. 우리 계는 처음에 다만 동성 사람들만을 가지고 만들었으나 지금은 비록 성(姓)이 다르더라도 만약 우리 장씨 족보와 연관이 있으면 모두 들어오게 하였다. 이는 또한 선대의 은혜를 미루어 화목하는 도를 넓힌 것이니, 선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정이 내외손(內外孫)의 간격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아들과 딸을 두지 않은 이가 없으니,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선대의 마음을 체득한다면 이를 상상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중에서는 마땅히 동성(同姓)과 이성(異姓)을 구별하지 말고 서로 후하게 대하는 의는 간격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선조를 추모하는 등의 일은 동성의 입장에 있는 자가 반드시 스스로 그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²³⁾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은 조정과 동년배이며, 상주에 인접한 인동에 살았다. 장현광은 전란 이전에 부친이 조직한 족계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선대에 만든 계는 동성(同姓)을 대상으로 하였

22) 『壬辰日記』下, 1592년 10월 2일 晴 早發朝飯于豊山縣里 士人李軫鄭敘鄭憲等四五人 出見 各出騎僕 送至安東 李君則且以米兩斗 惠扶行資矣. 夕投府內留宿 金翰林涌 今爲 守城 將在城內 乘昏來見 夜下雨如瀉.

23) 장현광, 「족계중수서」(『여헌집』 권8, 序) [附規約] 一. 吾契之初. 只就姓中爲之. 及今雖異姓疎遠. 若與張譜相連. 則皆入焉. 此亦推先世之恩. 廣睦婣之道也. 以先世視之. 慈情豈間於內外哉. 人莫不有子與女. 以其情而體吾先世之心. 則可以想矣. 然則契中當不分同異姓. 其相厚之義. 則宜無間然. 而但其追遠等事. 則在同姓者. 必須自盡其誠.

지만, 장현광은 ‘사랑하는 정이 내외손에 차이가 있겠나’고 하고 동성과 이성을 함께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어쩌면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제기였다.

조정 의 피란생활을 보면, 생존을 위해 결속하는 데에 내외손의 구분은 의미가 없었다. 내외손을 넘어서 혈족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체로 17세기 후반 이후 부계 친족 질서가 강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주요 동인을 ‘성리학의 자기화’ 혹은 ‘유교적 변환’으로 설명한다.²⁴⁾ 16세기 중반 이후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부각되었던 ‘성리학의 자기화’의 움직임은 전란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그들은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 내외손을 포괄하는 친족관계를 지향하였다.

Ⅲ. 생계 마련과 의례 활동

1. 생계 마련

전란 가운데 조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일이었다. 식량을 구하고 안전한 피란처를 확보하는 것은 그의 일상이었다. 우선 식량을 확보해야 했다. 조정은 노비들을 집으로 내려 보내서 곡식을 가져오게 하였고, 관곡(官穀)을 분급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얻어서 식량을 마련하였다. 처음에 조정은 종들을 집으로 보내서 보관해둔 곡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1592년 4월 21일 갑자기 나오느라 양식과 반찬을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해서 상주 고을 안의 집에 노(奴)를 보내 쌀섬을 가져오게 하였다.²⁵⁾

24)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이훈상 역,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387~415쪽.

25) 『壬辰日記』上, 1592년 4월 21일 晴 一行留寺倉猝出來 糧饌小齋 送奴于州內家 謀致

1592년 5월 1일 식량과 물품을 찾는 일로 종 범개(凡介), 연석(連石), 춘복(春卜) 등을 상주 고을 안으로 보냈다.²⁶⁾

1592년 6월 20일 보리, 소금, 간장을 가져오는 일로 상주 고을 안에 종을 보냈다.²⁷⁾

조정은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집에서 곡식을 날라 오기 바빴다. 5월에는 매일같이 종들을 집으로 내려 보냈다. 이렇게 보낸 종들 중에는 왜 적에게 잡혀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죽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곡식을 가져와도 식량은 부족했다. 그래서 조정은 끌고 다니던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어머니와 동생 일행에게 나누어 주었다.²⁸⁾ 어렵다고 하지만 아직은 지낼 만 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월과 5월에는 집에 보관해 둔 곡식이 있었지만, 6월부터는 곡식을 추수해서 가져와야 했다.

1592년 6월 23일 종 막생(莫生)이 천을(天乙), 득수(得壽)와 여종 금덕(今德), 전(全) 등을 거느리고 장천(長川)에서 들어왔다. 소문을 들으니, 그 지역은 왜구가 날마다 끊이지 않아 보리와 밀을 아직까지 거두어 타작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천을(天乙) 만이 밀과 벼 반반 씩 모두 2, 3말을 가져와 바쳤고, 나머지 종들은 한명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²⁹⁾

米石 流聞賊勢極鴟 將迫我境云 心緒益亂 此寺距州府不遠 慮有不虞之虞 更爲深入之計.

26)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1일 雨 留主家 糧物覓得事 送奴凡介連石春卜等于州內 奴卜守 自州內來現 始聞洪福及其母之死 驚痛驚痛; 2일 雨 留主家 凡介等 自州內還 各持米四五斗 合十數斗矣; 3일 晴 留主家 糧物覓得事 再送奴凡介連石莫同婢雲月于州內; 5일 雨 凡介等 自州內回來 所持米十數斗矣 奴莫同婢雲月 及大宅婢春梅恠卜等 中路逢倭被擄 莫同恠卜 則旋即逃還 而雲月春梅 經宿不來 可慮; 6일 晴 留主家 奴凡介孟乞等 以覓糧及推得雲月入去州內; 7일 晴 凡介等 遠自州內所得 租十數斗鹽醬各小許覓來; 8일 晴 凡介等 以覓糧事 持馬入去 中路聞倭奴多梗 夕還來.

27) 『壬辰日記』下, 1592년 6월 20일 收得麥斗鹽醬事 送奴于州內.

28)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4일 以行廚乏膳 推所隨牛一頭 三處分用.

29) 『壬辰日記』下, 1592년 6월 23일 奴莫生率奴天乙得壽及婢今德全等 自長川入來. 聞彼地倭寇 逐日不絕 兩麥迄未收打 天乙只齋半半稻半 並數斗來納 他餘奴婢 無一人來見者.

1592년 7월 16일 장천에서 온 종들이 돌아갔다. 이들 10여 인은 13일에 각각 보리를 서너 말씩 가지고 들어왔다. 큰집과 작은집에서 올해 여름에 거두어들이던 곡식이 각각 두어 섬도 되지 않아서 당장 눈앞에 가솔들이 먹고 살아나갈 방법이 없으니, 이처럼 근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장천의 전장(田庄)이 모두 큰길 옆에 있어서 왕래하는 왜놈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니, 편의에 따라 마음 놓고 타작 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³⁰⁾

1592년 8월 2일 개암(開岩)의 종이 나락과 보리를 가지고 왔다.³¹⁾

1592년 9월 20일 장천의 종이 껍질 벗기지 않은 쌀[租]을 짊어지고 왔다.³²⁾

조정은 왜병의 활동이 다소 잦아들자 6월말부터는 곡식을 수확해서 가져오게 하였다. 종들이 수확해 온 곡식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조정이 가장 믿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종들은 자신의 생각만큼 근면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가장 믿는 식량 자원이었다.

조정은 관곡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 쉽지 않았다. 조정은 직접 관창 앞에서 목으면서 줄을 서서 곡식을 기다렸지만 얻지 못하였다. 깊은 자괴가 들었을 것이다.

1592년 5월 9일 화령현에 사람을 보내어 먹을 만한 쌀[可米] 1곡(斛, 10斗)을 가져왔다. 감관(監官) 윤효인(尹孝仁)이 목사(牧使)의 지휘를 받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16일 화령현에서 벼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그곳으로 가다가, 도중에 다시 중지하였다는 말을 듣고 발을 돌렸다. 17일 화령창(倉)에서 진곡을 배급한다는 기별을 듣고 수락암에서 아이종을 거느리고 걸어서 화령창으로 갔다. 거리가 30리나 되어, 양발이 모두 부르트니 가여운 모습을 말할 수 없었다. (중략) 직접 진 흘곡을 구하러온 사족(士族)도 40여 명이 넘었으나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21일 화령현에서 벼를 진대(賑貸)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가보니, 윤효인이

30) 『壬辰日記』下, 1592년 7월 16일 晴 食後上山 長川奴輩還 右奴十餘人等 十三日各持 牽麥三四斗入來 大小宅 今夏所收 各不滿數三石 眼前諸累得活無計 何閔如之 長川田 庄 皆在大路傍 倭奴之往來者 陸續不絕 其不得任便打作 固矣 而然其田結 不至甚艱 苟能以誠收拾 則豈至若此之不實乎 奴僕之不忠不謹 到此極矣 痛憎痛憎.

31) 『壬辰日記』下, 1592년 8월 2일 開岩奴 持稻麥來; 3일 晴 覓租事 送奴于開岩; 12일 晴 食後 自義幕還來 長川奴屬 持果物租石入來 以其用秋夕奠故也.

32) 『壬辰日記』下, 1592년 9월 20일 晴 大將自黃嶺委來見疏草 日暮而還 長川奴負租入來.

오지 않고 있었다. 굶주린 백성 수백여 명은 그가 인색하게 배급하는 것에 분개하였다. (중략) 현창(縣倉)에서 묵었다.³³⁾

당시 상주 지역의 관창은 왜적들에게 모두 약탈당하였고, 남은 것은 화령창뿐이었다. 그나마 남아 있던 화령창의 감관은 진흙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알곡은 아끼고 해묵고 오래되어 쓰지 못할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조정은 관곡을 얻기 위해 직접 걸어서 산을 넘어 화령까지 갔고, 창고 앞에서 묵으며 기다렸지만, 직면한 사정은 냉혹하였다.³⁴⁾ 관곡은 사대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얻거나 빌린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량 자원이 될 수 없었다. 주변에서 얻은 것은 술과 반찬과 같은 특별한 음식이었다.

1592년 5월 5일 주인 노파가 좁쌀로 담근 술 반병과 도토리로 담근 술 몇 사발을 내왔고, 김징 또한 앵두 한 상자를 보내왔는데 바로 노속(奴屬)들이 본가(本家)에서 가져온 것이다.³⁵⁾

1592년 6월 1일 주인이 답을 잡고 기장밥을 지었으며, 아울러 백주(白酒)도 차려 주었다. 19일 함께 피난 온 사람인 신여주군과 박천식군이 밀떡과 보리술을 마련하여 여러 사람에게 대접하였다.³⁶⁾

33)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9일 雨下如注 終日到夜 川渠極漲 送人于化寧縣 取可米一斛而來 監官尹孝仁 率牧伯指揮分給云; 16일 晴 聞化寧縣賑租親進 中道聞還止 旋向關音寺水落庵 得見寶品禪師; 17일 十七日 晴 聞化寧倉賑給之奇 自水落率童奴 步歸縣倉 拒准一息 兩足盡蠱 閱不可喻 監官尹孝仁 吝其出納 趁不開倉 日暮不給 竟至空還 痛憎奈何 州倉已爲賊穴 報恩諸邑 倭寇遍滿 朝夕之間 當到此縣 雖有餘儲 而將不免爲賊攫無疑 而不肯分賑 嗷嗷之民 無所控訴 枵然散還 孝仁可謂有人心乎 士族之親去求得者 亦過四十餘人 而俱至空還 此尤可憐可憐; 21일 晴 聞化寧縣賑租親去 則監官尹孝仁不來 飢民數百餘人 憤其吝給 且聞色吏庫子等 偷出倉穀之奇 突入其家 搜探所藏 各自分執 有若強盜 而無能禦之者 窮則斯濫 豈不信乎 留宿縣倉.

34)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23일 與趙佩卿諸君 冒雨衝泥 艱得還寓 平日非惟不學徒步 如此等事 一未嘗親進爲之 而遽遭變故 饑餓切身 未免屈身而強求 其苦不可言不可言.

35)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5일 主媪進粟米酒半壺 橡實酒數鉢 金澄亦送櫻桃一筍 乃其奴屬 自渠本家所摘來者也.

36) 『壬辰日記』上, 1592년 6월 1일 晴 主人殺鷄爲黍 兼設白酒矣; 19일 晴 氣不平 留主

1592년 9월 28일 마을에는 감나무가 숲을 이루어 열매가 풍성하였는데 주인 집에서 우리에게 각각 100여 개씩 주었다.³⁷⁾

조정은 피란하는 중에 단오를 맞이하였다. 계절은 좋았지만 처지는 옹색할 뿐이었다. 머물고 있는 집 주인 노파가 술을 보내왔고, 이웃에서 피란하던 서족 김징이 앵두를 보내왔다. 또 6월에는 머물고 있는 집 주인이 닭을 잡고 기장밥을 해서 대접해 주었다. 조정은 산골짜기라서 왜적의 화를 피하고,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심이 남아 있다고 감탄하였다. 또 함께 피란하는 사람들이 보내온 밀떡과 보리술은 감동이였다. 이렇게 주변의 호의에서 확보한 재화는 절실하였지만, 그 수량과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다음으로 주변에서 곡식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다.

1592년 5월 18일 이른 아침에 사람과 말에 실은 몇 개의 짐을 가은리(加恩里)로 보냈으니, 김지원(金至元)과 신응개(申應漑) 집의 식량[殖租]를 꾸어오기 위함이다.³⁸⁾

조금의 식량도 급하던 5월 중순에 조정은 여러 차례 가은리 신응개에게 가서 식량을 꾸어왔다. 처음 두 번은 왜적 때문에 길이 막혀 못가다가 이제야 가게 되었다. 조정이 피란하는 동안 개인에게 곡식을 빌린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또 다른 방법은 식량을 구입하는 방법이었다. 이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데, 모두 피란하는 사정에서 돈을 준다고 한들 구입할 곳이 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몸만 간신히 피해 온 사정에서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었다. 우선 처음 피란길에 올랐을 때 조정은 가지고 있는 벼필을 주고 곡식을 샀다.

家 同避人申君汝柱朴君天植設麵餅麥酒爲餉諸人 累月饑餒之餘 得此時差 爲感如何。

37) 『壬辰日記』下, 1592년 9월 28일 晴 村有柿木成林 結實離離 主家各遺百餘介.

38)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18일 晴 早朝送人馬數馱于可隱里 爲出金至元申應漑家殖租故也.

1592년 4월 30일 무명 1필(疋)을 이웃집 노파에게 주고서 껍조[皮粟] 3말 [斗], 누런 콩[黃豆] 3말 2되, 붉은 팥[赤豆] 1말을 얻었다. 또 무명 반 필로 도토리[橡實] 15말과 바꾸었는데 쪼아서 정리하여 껍질을 벗겨보니 겨우 7말 쪼 되었다. 식량이 다 떨어진[垂橐] 즈음에 이 몇 가지 곡식을 얻어서 위아래로 식구들의 8~9일치 식량을 마련하였다.³⁹⁾

조정은 가지고 있던 무명을 주고 곡식을 샀다. 무명 1필로 피조와 콩과 팥을 샀고, 무명 반 필로 도토리도 샀다. 조정은 평소에 도토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 먹은 적은 없었는데, 처음 사 먹어 보았다.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해서 기장이나 조로 지은 밥보다 나았다. 배고픔을 달래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8~9일치 식량을 마련하였다. 이 경험은 조정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계속 피란하는 가운데 가을이 왔고, 조정은 속리산에 피란해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천왕봉에 올랐다. 음력 8월이었다. 조정 일행은 천왕봉을 구경하고 내려오는 길에 도토리를 주웠다.⁴⁰⁾ 처음 산골짜기 외딴집에 피란하였을 때 처음 먹어보았는데, 이제 직접 주워서 먹게 되었다. 이렇게 전쟁은 조정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2. 의례 활동

상주는 왜란의 피해가 특별히 참혹하였다.⁴¹⁾ 조정은 일상이 훼손되어

39) 『壬辰日記』上, 1592년 4월 30일 雨 留主家 質木一疋於隣媪 得皮粟三斗 黃豆三斗二升 赤豆一斗 又用木半疋 換橡實十五斗 搗整去皮 則僅七斗許矣 垂橐之際 得此數種 可以供上下八九日之費 何幸如之. 平日只知橡實之爲可食 而未嘗親嘗之 今始取啖 則味頗溫甘 有勝黍粟之飯 於療飢 亦甚有力 此眞吾長物也.

40) 『壬辰日記』下, 1592년 8월 17일 晴 食後奉慈氏及諸弟妹 登覽天王峯 仍還蘆谷寓次 來路拾得橡實幾數斗 家屬避賊皆上山 小兒輩 僅免水火矣.

41) 임진왜란 당시 상주 지역의 전투 양상과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성우, 「임진왜란 초기 制勝方略戰法の 작동 방식과 상주 북천전투」 『한국사연구』 163, 2013, 238~243쪽; 우인수, 「임란시 상주 북천전투의 실상과 현창사업」 『역사교육논집』 62, 2017, 122~134쪽.

버렸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일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가운데 제사가 찾아왔고, 조문을 해야 할 사례도 있었으며, 혼례도 했다.

조정외 장남 조기원은 1592년 4월에 혼례를 하였다. 조정은 4월 14일 기록에서 관의 첩정을 보고 동래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관아에서 군마를 징발하는 일로 소란하였지만 장남의 혼례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조기원의 혼례는 전란 이전에 이미 논의된 것이었고, 별 탈 없이 치를 수 있었다.

피란하는 중에도 혼인은 이루어졌다. 음력 8월 보름에 어머니가 계시는 속리산 영대암에서 차례를 지내고, 잠시 쉬는데 보은 사람 이여즙이 찾아와서 혼인을 청하였다.⁴²⁾ 당시 조정외 세 남동생과 두 여동생은 이미 혼인하였고, 남은 막내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피란하고 있었던 사정을 생각하면 여동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혼인이 성사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을 보면 전란 중에도 혼인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조정외의 아내 의성김씨는 임하에 돌아간 후에 숙부 김성일 닁의 초례에 참석하고 3일 후에 돌아오기도 하였다.⁴³⁾

다음은 제사였다. 조정은 피란하는 중에도 외조부모와 부친의 제사를 모셨다. 조정외의 외조부는 남양홍씨 홍윤최이고, 딸만 셋을 두었는데 조정외의 모친은 셋째 딸이다. 외조모는 지난 해(1591년)에 돌아가셨고, 올해 첫 기일을 맞이하였다. 당시 외조모의 신주는 큰 이모가 받들고 피란하였다. 조정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우와 함께 백주와 닭고기, 생선 등을 챙겨서 이모에게 가서 함께 제사를 지냈다.

7월 4일은 외조부의 기일이였다. 때마침 조정은 7월 1일에 곡식을 빌리기 위해서 가운에 갔다. 늦어서 하루 그 집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에

42) 『壬辰日記』下, 1592년 8월 15일 雨 設紙勝 奉奠祖先諸位 遭亂以來 長在山谷 東窟西奔 不定所寓 日月流邁 已迫秋夕 松楸展省 亦無其路 言念及此 忽欲忘生 我辰如何 一至此極 痛歎痛歎 夕與寶品上人同登浮閣臺玩景 暮投大寺宿 三山儒士李汝楫來見 生年少而有才氣者也 求婚於吾家甚懇云.

43) 『壬辰日記』下, 1592년 10월 29일 陰 荊布歸申谷 爲參右方伯家醮席故也; 11월 2일 晴 日甚寒 荊布自申谷還.

돌아왔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왜적에게 변을 당할 뻔하였다. 다음날 아침 조정은 가족들을 이끌고 노곡으로 갔는데, 그날 저녁 가운에 다시 왜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하였다. 이런 가운데에도 외가 친족들은 한 곳에 모였다. 다음날 외조부의 기일이기 때문이었다. 조정은 이모와 함께 밥과 국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냈다.

조정 부친의 기일은 12월 4일이었다. 한겨울이었다. 당시 조정은 처자식과 함께 처가에 있었고, 제사 때문에 노곡으로 돌아왔다. 두 달 전 임하로 갈 때 영대암에 계시던 어머니는 보은 복천사에 계셨다. 조정은 노곡에 도착한 다음날 어머니에게 갔다. 제사 전날 동생과 함께 재계하였고, 4일 눈이 내리는 새벽에 제사를 지냈다.

1592년 12월 4일 새벽에 일어나 지방(紙榜)을 써서 소략하게 제사를 지냈다. 이날에 아버지를 그리는 애통한 마음은 평소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지금은 나라가 깨어지고 집안이 망하여 산골짜기에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원통한 이내 마음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⁴⁴⁾

조정은 전란 중에도 아버지의 제사는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조정이 피란하는 동안 기제사를 언급한 것은 모두 세 번이었다. 조정의 조부 조희(趙禧, 1507~1588)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상주로 내려왔는데,⁴⁵⁾ 조광현은 조희의 외아들이고, 조정은 조광현의 장남이다. 그러나 조정은 조부의 기제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⁴⁶⁾

절제도 지나칠 수 없었다. 조정은 4월 20일에 집을 나섰고, 5월 초까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단오라는 것을 알았지만 산소에 술 한 잔 올릴 수 없는 처지를 한탄하였다.⁴⁷⁾ 두보의 시를 떠올리며

44) 『壬辰日記』下, 1592년 12월 4일 雪 晨起 設紙榜 略行奠禮 此日永慕之痛 平日之所不堪 況今國破家亡 漂泊岩谷 怨痛之私 如何盡喻.

45) 정재훈, 『보물 제1003호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1.임진일기 상·하』 해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46) 조정, 『黔澗集』 「辰巳日錄」 1593년 2월 3일; 조익, 『可畦集』 권8, 「辰巳日記」 1593년 2월 3일.

47)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5일 主孀進粟米酒半壺 橡實酒數鉢 金澄亦送櫻桃一筥 乃

상심에 젖어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왜적이 관곡을 모두 흡어버려서 남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윽고 8월이 되었다. 며칠 전부터 종들이 과일과 벚섬을 가지고 올라왔다. 8월 14일에는 동생과 함께 약간의 음식을 마련해서 속리산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갔다.

1592년 8월 15일 지방(紙榜)을 써서 선조들의 제위(諸位)에 차례를 받들었다. 난리를 만난 뒤로 오래도록 산골짜기에 거처하면서 동쪽으로 숨고 서쪽으로 달아나느라 머물 곳도 정하지 못하였거늘, 세월이 흘러 벌써 추석이 되었으나 선영에 성묘할 길 또한 없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문득 삶을 버리고 싶어졌다. 내가 태어난 때가 어찌하기에 이토록 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통탄스럽고 통탄스럽다.⁴⁸⁾

조정은 추석날 지방을 써서 선조들의 제위에 차례를 지냈다. 이미 집을 떠난 지 넉 달째였다. 어느덧 날은 추워졌고, 집으로 돌아갈 길은 막막하였다. 조정은 통탄하며, 차례를 지냈다. 어느덧 9월이 되었다. 9월은 네제를 지내는 달이며, 음력 9월 9일은 중앙절이었다. 네제(禩祭)는 9월 중의 어느 날을 정하여 부모에게 올리는 제사이다.

1592년 9월 9일 임시로 제철 음식을 준비하고 지방(紙榜)을 마련하여 돌아가신 아버지께 제사를 지냈다. 9월은 본래 네제(禩祭)를 지내는 달인데 오늘 중앙절(重陽節)을 맞이하여 마음속 생각이 더욱 어지럽고, 고향의 산천을 서글프게 바라보니 오장(五臟)이 찢기는 것 같다. 거친 음식을 허술하게 준비하는 것이 비록 건성건성이라 할 만하지만 또한 어찌 스스로 그만두겠는가. 날이 저물어 제사 지낸 음식을 어머니가 계신 곳에 보내고 이어서 여러 벚을 맞이하여 바위 위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⁴⁹⁾

其奴屬 自渠本家所摘來者也 仍念 今日乃是天中節也. 節物猶在 時變至此 流離一隅 不得還土 松楸一酌 奠酌無由 觀物興感 方寸若煎 我生不辰 尚寐無覺.

48) 『壬辰日記』下, 1592년 8월 15일 雨 設紙榜 奉奠祖先諸位 遭亂以來 長在山谷東窟西奔 不定所寓 日月流邁 已迫秋夕 松楸展省 亦無其路 言念及此 忽欲忘生 我辰如何 一至此極 痛歎痛歎. 夕與寶品上人同登浮閣臺玩景 暮投大寺宿 三山儒士李汝楫來見 生年少而有才氣者也 求婚於吾家甚懇云.

49) 『壬辰日記』下, 1592년 9월 9일 朝雨晚晴 暫備時物 設紙榜 奉奠于先考位 九秋本是祭

조정은 네제와 증양절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음식을 마련하고 지방을 준비하였다. 제사를 지내고, 올렸던 음식은 어머니께 보내드렸다. 이렇게 조정은 피란하는 중에도 명절 의례를 거행하였다. 전쟁으로 비일상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죽음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러나 평소의 상례는 진행하기 어려웠다. 당연한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런 가운데 조정은 정경세의 모친상에 조문을 하였다.

1592년 7월 11일 아우 심중(審仲, 趙斌)과 함께 소야동으로 가서 정경임(鄭景任, 정경세)을 조문하였다. 정경임은 일찍이 6월 중에 어머니와 아우를 왜적의 손에 잃었고 그 자신도 화살을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⁵⁰⁾

정경세(鄭經世, 1563~1633)는 6월 왜적에게 어머니와 아우를 잃었다. 이때 그도 화살을 맞아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조정은 이제야 가 보았다. 조문을 겸하여 정경세의 사정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외에 조정이 직접 조문하기 위해 나선 것은 볼 수 없었다.

문제는 상례였다. 조정의 어머니는 1593년 2월 피란하는 가운데 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상례를 치루기도 힘들지만, 기록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조정과 조익의 기록을 종합하면 대략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1593년 2월에 들어서자 전염병이 기승을 부렸다. 조정은 1593년 2월 26일, 지난 10월부터 임하에 있는 아들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⁵¹⁾ 조정은 급히 임하로 갔다. 조정이 떠난 후 조익은 어머니를 모시고 토정(土井)으로 갔다. 3월 말이 되자 보은과 회덕 등지

禰之月 今遇節日 心緒益撓 悵望家山五內如割 草具虛設 雖曰草草 而亦安能自己也。日晚送祭餘于慈氏所 仍邀諸友 暫話于岩石上。

50) 『壬辰日記』下, 1592년 7월 11일 驟雨 偕審仲 往弔鄭景任于蘇夜洞 景任曾於六月中喪其慈闈及舍弟於賊手 景任亦中矢 幾死復甦云 日暮留宿 金景樞李士擴士會同寢。

51) 조익, 『可畦集』 권8 『辰巳日記』 1593년 2월 二十六日。伯氏聞姪兒患癘之報。發臨河之行。而道路尙多阻隔。何以作行。不勝悶慮。得見湖西方伯書。天將在松都。無意前進。一軍還向箕都。勢無可爲。自陽川陣還歸稷山云。天將之意。未知何故。而恢復之期。漸遲可憫。

는 왜병이 기승을 부렸고, 어머니를 모시고 옮기는 가운데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다.⁵²⁾ 소식을 들은 조정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왔으나 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다. 며칠 사이에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고, 4월 2일 모친상을 당하였다.⁵³⁾ 어머니의 장지는 보은 궁평으로 정하였다. 조익의 기록은 4월 2일부터 19일까지가 없기 때문에 사정을 알 수는 없다. 조익은 20일에 여동생들과 가족들에게 병이 전염되어 빈소를 회덕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4월 23일, 옮긴 빈소로 정경세와 이빈(李賓)이 조문을 왔다. 조익은 5월부터 1593년 9월 15일까지 초하루와 보름에 전을 올렸다고 기록하였고, 이후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사이 7월 11일 조익은 임하에서 온 사람이 형님[조정]이 잘 지낸다고 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⁵⁴⁾ 모친상을 당한 후에 조정이 언제 임하로 갔는지 알 수 없으나, 조익의 기록에 의하면 6월 17일 외조모의 기일에 외가에는 못가지만 형님과 함께 전의를 차렸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이후에 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에 대한 기록은 조익의 『가규집』에는 ‘외왕고초기(外王考初基)’라고 하였는데⁵⁵⁾, 조정의 일기에는 1592년 6월 17일이 외조모의 첫 번째 기일이어서 이모와 함께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조익의 문집에 수록된 일기와 조정의 초고본에 차이가 있다. 이런

-
- 52) 조익, 『可畦集』 권8 「辰巳日記」 1593년 3월 ○二十六日。得抵宮坪，報恩，懷仁界。慈氏有不安節。煎憫不可喻。○二十七日。慈氏患節。比昨似劇。煎迫罔措。不可形言。○二十八日。患候漸至沉重。似是染症。煎泣禱天而已。亂離之中。各拘生計。伯氏遠在一隅。誰與侍疾。以此情緒尤惡。○二十九日。患候一樣無減。伯氏自福泉尋到此處。一喜一悲。握手無言。賊氛尙熾。以患報之不能卽通爲罪。忽此來到。無乃心動而然耶。滿國凶鋒。何以避來。重患之餘。又當煎灼。恐復生病。是憫。
- 53) 조익, 『可畦集』 권8 「辰巳日記」 1593년 4월 一日。患候漸篤。罔知攸措。金純謹來饋糧餉。其餘親知之續續來問。不能盡記。○二日。竟遭罔極之變。以十日。權厝于三山宮坪。因留守墓側。自此。至十九日。無日記。○二十日。弟妹及下屬。次第染痛。不得已奉几筵。分寓於懷德縣塔山村。○二十三日。鄭佐郎經世。來弔。○二十五日。大將及李察訪賓來弔。○二十八日。與伯氏往省宮坪墓所。
- 54) 조익, 『可畦集』 권8 「辰巳日記」 1593년 7월 ○十一日。金德輝自安東來。傳臨河消息。而伯氏姑支安。慰喜可言。自臨河。又移川前云。
- 55) 조익, 『可畦集』 권8 「辰巳日記」 1593년 6월 ○十七日。是日卽外王考初基。伯氏寓所。想略設奠儀。而不得往參。倍切悲慕之懷。

차이를 고려하면 그사이 조정의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조익의 기록에 의하면 모친상 중인 8월 중순, 조정은 다른 곳에 있었고 조익이 동생 조준에게 치전하도록 하였다.⁵⁶⁾ 조익 자신은 병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형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또, 조익은 5월 이후 삭망전은 자신이 올린 것으로 기록하였다. 상례에서 조정 형제의 역할 분담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조정은 처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고, 조익은 피란하는 동안 어머니 봉양 및 상례를 자신이 주로 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조정의 처부 김극일은 딸만 둘이었고, 둘째 딸이 조정의 아내였다. 김극일의 아내 이씨는 1593년 두 딸에게 상속을 하였고, 둘째인 조정의 아내가 받은 몫은 분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⁷⁾ 여기에는 조정이 처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으로 당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제사와 상례 등의 의례는 자녀가 함께 분담하는 것이며, 나이와 성별은 그들 사이의 역할 관계를 조정하는 정도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외조모의 신주를 모시고 피란하는 큰이모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장남인 조정이 처가에서 지내면서 모친의 시봉과 삭망전을 동생이 올린 것에서도 짐작되는 바가 있다.

VI. 친족 네트워크의 사회적 작동

조정의 처가는 안동 내앞이다. 처부 김극일은 선조 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공인된 자격을 갖추었고, 집안에서도 맏이로 중심이었다. 김극일의 사위가 된 것으로 조정의 사회적 위상은 충분히 증명된다. 그런 조정이 전란에서 경험한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지방관을 통해 대면한 국가는 자취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었고, 생활공간에서 직면하게 된 상하의 질서는 훼손되어서 어디에다 말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무엇을 할

56) 조익, 『可畦集』 권8 「辰巳日記」 1593년 8월 ○十四日。備酒饌。使竣弟。往奠宮坪。吾病未進參。如不祭焉。

5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고문서집성』 1, 영남대출판부, 1992.

것인가. 이 문제는 왜적의 칼날에서 살아남는 것만큼 절박한 문제였다.

조정은 피란하는 가운데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피란하는 조정의 평범한 일상이다.

1592년 6월 19일 함께 피난 온 신여주(申汝柱)군과 박천식(朴天植)군이 밀떡과 보리술을 마련하여 여러 사람에게 대접하였다. 몇 달 동안 굶주린 뒤에 이러한 철에 맞는 음식을 먹으니, 감회가 어떠하겠는가! 20일 콩죽을 지어 함께 피난 온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대접하였다. 21일 송언명(宋彦明)의 집에서 보리밥을 지어 여러 사람에게 대접하였다. 이로부터 돌아가며 점심을 마련하는 것이 그대로 관례가 되었다. 22일 신극(申克)과 김덕수(金德秀)가 콩죽을 마련하였다. 23일 신문숙(申文叔)과 박문진(朴文軫)이 콩죽을 마련하였다. 함께 피난 온 사람들이 활쏘기를 하여 이긴 자가 보리술을 추렴하였다.⁵⁸⁾

신여주, 송언명, 신극, 김덕수 등은 조정의 아들이 혼례하던 날에도 찾아와서 함께 지켜보던 사람들이었다. 조정은 피란하는 중에도 이들과 함께 하였다. 이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내기 활쏘기를 하는 가운데 전란을 극복할 논의를 하였을 것이다. 이런 일상에서 조정은 사대부로서 자기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조정에게 전란은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존재를 실감할 수 없는 국가와 훼손된 위계질서 뿐이었다.⁵⁹⁾

심각한 문제는 전란이 발발한 이후 끊임없이 목격된 지방관의 실상이었다. 상주는 전란에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고, 상주 복천전투는 왜

58) 『壬辰日記』下, 1592년 6월 19일 晴 氣不平 留主家 同避人申君汝柱朴君天植 設麵餅麥酒爲餉諸人 累月饑餒之餘 得此時差 爲感如何; 20일 晴 氣小蘇 留主家 伐松爲簷 以避庚熱 作豆粥 爲餉同避諸君二十餘人 童子不與焉; 21일 晴 留主家 宋彦明家 炊麥飯爲餉諸人 自此輪設點心 仍以爲例 日候極熱; 22일 晴 留主家 申克金德秀 設豆粥中伏; 23일 晴 留主家 申千叔朴文軫 設豆粥 同避諸人 射的鬪勝者 釀出麥酒.

59) 『壬辰日記』下, 1592년 6월 23일 奴莫生 率奴天乙得壽及婢今德全等 自長川入來 聞彼地倭寇 逐日不絕 兩麥迄未收打 天乙只齋半半稻半 並數斗來納 他餘奴婢 無一人來見者 身爲奴隸 當此極變 背棄其主 一不參問 罪當誅戮 而家國崩 則法禁解弛 強吞衆暴慢不知上下奴主之分 時變至此 何以聊生 家藏書冊 及雜物 遭火之餘 秋毫不遺云 埋主之地 亦被掘發云 此尤痛心痛心.

란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였다.⁶⁰⁾ 이 때문에 조정의 기억은 상주, 함창 등의 지방관에 대해 비판적인 분노 일색이었다.⁶¹⁾ 두 사람은 무책임하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기도 한다는 등 조정은 수시로 이들의 악행을 토로하였다.⁶²⁾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전해진 소식은 더욱 절망적이었다.⁶³⁾ 현실은 조정과 같은 지식들이 자신과 지역, 나아가 국가를 지킬 방안을 찾아 나서도록 하는 촉매가 되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왜적으로 입은 피해보다 왜군의 적진에 들어가 문제를 야기하는 하민들이 사정이 더 절망이었다. 전쟁으로 조정이 생각해 온 상하의 기강은 무너졌다.⁶⁴⁾ 조정은 왜적보다 국가 질서가 훼손된 것이

60) 李昊俊,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148~151 쪽; 김정우, 앞의 논문, 2013; 우인수, 앞의 논문, 2017.

61) 『壬辰日記』上, 1592년 4월 24일 大概前聞咸倅之言 石田之變 一軍盡斃 無一人遺者 兩帥僅以身免云云 而及今審聞 逃卒之言 則所謂石田琴湖高靈等三處之變 皆未接戰 而潰 故諸軍委棄兵糧而已 別無殞命者云云 且點檢奴僕及閭里之赴軍者 則亦皆生還 以此推之 咸倅所謂盡斃云者 殊非的報是必以不接戰先逃 懼其不免於軍法 而搆出無實之語 欲掩其己罪也 不獨州伯及咸昌倅爲然 傳聞星州大丘等守宰 亦皆棄城逃歸云 嶺外諸鎮 將有不攻自破之勢矣 可嘆可嘆.

62)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8일 流聞吾州之伯 寄食山寺 所率不滿五六人 而頃又棄歸 如失手足 今方轉宿僧房 乞米以資云 半刺則接戰之日 墜馬陣中 未及出避 遇害於賊刃 云 而時未能的知也.

63)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28일 雨 留主家 聞自京下來之倭 今尚不絕云 未知所由 豈糧盡難於留住 不然則彼無禦之者 竊據都城以爲窟穴 何所憚而遽邇下來耶 聞自京傳 通內 士族及平民無故者 斬倭三級以上 賜武科及第 公私賤則從良云 且聞防禦助防等將 狀啓內 嶺外守令 舉皆棄城逃走 而唯尙牧某 率其子弟及孱卒 獨守孤城 效死不去 咸昌 倅某 敗軍而還 逃走不現云云 自上深褒尙牧 而命誅咸倅云 咸昌尙州 厥罪相等 而其無 意國事 任其自爲 賊勢將及 不思所以捍禦之方 而遽作逃走之計者 尙州尤甚 而彼輩 敢 逞私驕 欺罔入啓 以致賞罰之乖當 可痛 可痛 大概石田虛驚之潰 罪在此兩倅 向使防禦 巡邊等使 先梟此兩人之頭 以懲其餘 則四散之卒 必皆相謂曰 退怯之故 已斬主帥 吾等 不進 則後難免誅 不如亟聚力戰 求生於必死之中 數萬之卒 可以立致接戰之際 亦 必有 殊死之心矣 計不出此 而上下相蒙 務循姑息 雖欲不敗得乎 末女得疴 苦痛可慮.

64)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2일 雨 留主家 凡介等 自州內還 各持米四五斗 合十數斗 矣 聞其言 州內倭寇 連續不絕 散處閭閻 晝夜攻抄 人不安接 以此渠等 亦乘夜潛入 艱 得此物而來云 大概賊徒爲半 本國之人相雜 人或諱審 其顏面 則多是積年往來之鹽商 其言語云爲 不類烏夷 假着倭服 削髮混迹 如見前日識面之 人 則輒藏頭回避云 此輩肆 毒尤酷 窮搜深僻之地 挈攫如虎 觸輒投火 其害有甚於本倭將來之患 亦不啻外寇而止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모두 벼슬아치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⁶⁵⁾ 피란하는 동안 조정은 국가 질서가 훼손된 것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지방관의 직무유기와 하민들의 무질서한 행태는 전란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과연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이런 사정에서 조정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고, 하민들에 대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해야 했다.

조정은 의병을 모아 왜적에게 빼앗긴 자신의 기반을 회복하고, 훼손된 국가 가치를 재건하는 데에 나섰다. 상주에서 온 통문에 낙서촌에서 모이자고 하는 소식을 듣자, 조정은 다음날 30여 명을 거느리고 약속한 장소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돌아섰지만, 다음을 기약하였다.⁶⁶⁾ 며칠 후에 처숙부 김성일이 초유사가 되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다.⁶⁷⁾

이제 조정은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대부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의병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런 일에서 조정의 친족 네트워크와 교유 관계는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1592년 7월 26일 청주 사람 이봉(李逢)은 나이가 70에 가깝다. 젊었을 때 무예를 닦았지만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고 시문에는 능하였다. 기개와 절조가 있어 그 고을의 산척(山尺) 20명을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왜적을 토벌하여 나라에 보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카인 채유희(蔡有喜)도 힘을 다하여 거사를 도왔다. 오늘 모두 황령사(黃嶺寺)에 모여 군량을 마련하고 바야흐로 가은현(加恩縣) 경계

痛甚痛甚.

65)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5일 生逢聖君 睿哲出天 休養生息 垂三十年內 無嗜音雕墻之失 外絕遊畋 馳騁之豫 深居側席 勵精求治 此誠三代下不易得之良會 而以言其內 則朝著之不靜如彼 以言其外 則醜虜之陸梁至此 天乎時乎 厲階誰生 肉食者謀之 而謀之不臧 藿食者竝受其殃 志士漆室之膽 安得不於此馬輪困也.

66)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18일 晴 早朝送人馬數馱于可隱里 爲出金至元申應漑家殖租故也 吾則率此洞軍人等三十餘名 將赴洛西之際 路遇姜進士座首丈 聞德山前 亦聚軍人之奇 仍偕姜丈赴彼 則無一人來會者.

67) 『壬辰日記』上, 1592년 5월 23일 大雨終日 因尹公聞鶴峯令公 中道放赦 更拜招諭使 下來云;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4월 14일 계묘; 『鶴峯全集』 부록 권1, 연보 만력 20년(1592, 선조 25) 임진.

에 복병을 매복할 계획을 도모한다고 한다. 나는 저녁을 틈타 걸어서 송언명(宋彦明)과 함께 황령사에 가서 군사모의에 참석하여 들었다.⁶⁸⁾

7월 26일 황령사에서 처음 모였다. 처음에 이홍도(李弘道), 채유희(蔡有喜) 등이 모의하였고, 채중구(蔡仲俱)가 청주(淸州)로 가서 그의 외숙 이봉(李逢)과 궁수 17, 8여 명과 함께 왔다. 함창(咸昌)과 문경(聞慶) 등지의 사족(士族)들이 호응하여 40여 명이 모였고, 궁수는 청주 사람들까지 합하여 50여 명이었다. 이봉을 대장으로 하고, 함창 사람 이천두(李天斗)를 중위장(中衛將), 전식(全湜)과 송광국(宋光國)과 조광후(趙光後)와 조정은 좌막(佐幕)이 되었고, 채천서(蔡天瑞)와 홍경업(洪慶業)을 장서(掌書)로 삼았다. 조정은 정사도 겸하였고,⁶⁹⁾ 정경세는 맹약문을 썼다. 며칠 사이에 들은 이야기는 예안에서도 의병이 조직되었다고 하였다.⁷⁰⁾ 그런 가운데 전공도 세웠다.⁷¹⁾ 그런데 지방관이 문제를 일으켰다.

68) 『壬辰日記』下, 1592년 7월 26일 淸州人李逢 年近七十 少時事武學業不就 亦能詩文 有氣節 召募其邑山尺二十人 唱義討賊 欲爲報國之計 其甥蔡有喜 亦力贊舉事 今日並聚黃嶺寺 措得軍糧 方謀 設伏于加恩縣境云云 僕乘夕徒步 與宋彦明偕進彼寺 參聽軍謀李逢 矍鑠人也 但未免有志大才疎之弊矣 草莽之士 莫不有奮忠敵愾之志 恢復舊物 豈無其期也 夜與諸公同寢.

69) 『壬辰日記』下, 1592년 7월 30일 晴 食後 偕權察訪從卿 鄭內翰景任 往會于理黃嶺洞口 爲討賊事也 其始 李弘道蔡有喜等 首謀唱義之舉 蔡公仲俱 往淸州奉其舅 李逢及弓手十七八人 來咸昌聞慶等地弓手及士族輩 亦同聲相應 俱會于此 士族近四十餘員 操弓者 合淸州人 亦近五十餘人矣 僉議推李逢爲主將 咸昌李天斗爲中衛將 全湜宋光國趙光後及余爲佐幕 蔡天瑞洪慶業爲掌書 以余並兼之 議訖 主將北向再拜 哭以誓日 諸座中 繼亦北向拜訖 且拜于主將 主將曰 國辱至此 今日之盟 有死勿渝 咸曰諾且命鄭景任 記同盟之意書諸編名之首 仍立三章之法 臨賊先退者斬約後謀退者斬 違令者 失期者 訛言惑衆者 並依軍律論斷.

70) 『壬辰日記』下, 1592년 8월 5일 宜城琴應夾應璫金垓等 亦募兵唱義云.

71) 『壬辰日記』下, 1592년 8월 7일 陰 早朝還寓次 聞募兵等捕賊之奇 與文叔景樞景任從卿等 急赴黃嶺寺 則大將率兵 設伏于松院峴洞口 遇倭奴六人 射夫畜憤已久 一時齊發 須臾盡獲斬首 得其所佩環刀大小並六柄 火筒俱鐵丸火藥等六事 書簡封廿餘裹 乃是自此 持傳通還其地者也 書中有高麗國王退在平壤 不及乞罪 及大明 全羅道大丘等語 而字畫皆胡草不正 不類我國所書 不能知悉其梗概矣 後日報使次 吾等各逢受而來 所斬雖小 而皆是勁賊 且得其軍器甚多 間諜亦被獲不去 此尤可喜 吾等既到寺院參請 謁大將坐廳事上受賀 軍聲稍振 莫不踴躍歡喜 殊有死敵心 得聞京報 邸駕今駐伊川 方圖

함창현감이 의병활동에 제동을 걸어왔다.

1592년 8월 11일 사확(士擴)·사회(士會)·전정원(全淨遠)과 함께 황령사(黃嶺寺) 막중(幕中)으로 갔으니, 상의할 일이 있어서였다. 함창 현감(咸昌縣監)은 의병이 왜적을 잡은 뒤로 시기와 미움이 날로 심해져 우리에게 ‘호협(豪俠)’이라는 오명(汚名)을 가하려 하였다. 또 사족 집안의 활과 화살을 거두어 의병이 쓰지 못하게 하고 조공장과이와 대장장이에게도 의병의 군기(軍械)를 수리하는 것을 금하였으니, 그 마음씀씀이를 살펴보면 진실로 형편없는 소인배이다. 애초에 이런 사람과 일을 도모한 것을 깊이 후회하지만 이제 와 되돌릴 수 없으니 몹시 한스럽고 한스럽다.⁷²⁾

이런 사정에서 조정의 부대는 더 이상 전공을 세우지도 못하였다. 여럿이 모여 해결책을 거듭 논의하였고, 결국 순찰사에게 관문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조정은 이 일을 성사시키는 직임을 맡았고, 의병 부대를 대표해서 관문을 가지고 순찰사에게 가기로 하였다.⁷³⁾ 순찰사 김성일은 조정의 처숙부였다. 조정은 25일에 출발하여 29일 거창현에 도착하였다. 이후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592년 8월 29일 거창현에 도착하였다. 곧바로 순찰사(巡察使)를 뵈고 이곳에 온 사정을 말한 뒤 문서를 올렸다. 방백이 급히 펴 보고 마음을 다해 받아주었으니, 아뢰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시행되었다.⁷⁴⁾

進取大都 以復舊業 且以慶尙分設左右方伯 仍以招諭使金某爲左道監司 龍宮倅禹伏龍 以戮力討賊之故 褒陞通政云 此乃前通津盧大河之奴所傳也 右奴因事上去伊川 王世子卽引見 備問嶺外賊勢之衰盛 且問俗離山險阻可避亂與未 仍以朝報及備邊司公事付送此人 蓋以道途阻梗 不得由驛路直傳故也 夕還蘆谷 奇兒自長川還來 彼地往來之賊 尙陸續逐日不絕云.

72) 『壬辰日記』下, 1592년 8월 11일 晴 與士擴士會全淨遠 往黃嶺寺幕中有相議事 咸倅自義兵捕倭之後 猜嫌日深 欲圖 我等以豪俠之名 且收取士族家弓矢 使不爲義兵之用 弓匠鐵匠 亦禁修補義兵中軍械 觀其用心 眞無狀小人也 深悔當初與此等人謀事 而今不可追 痛恨痛恨.

73) 『壬辰日記』下, 1592년 8월 21일 晴 終日陪大將論事 舉事之後 賊不多捕 而事多掣肘 軍情日撓 須有關白于巡察道處置之端 大將以僕及李士擴爲使 督以廿四日持文發程矣.

74) 『壬辰日記』下, 1592년 8월 29일 晴 曉發 抵居昌縣 卽拜巡察使爲陳所來曲折 仍呈文

1592년 9월 1일 이른 아침에 들어가 방백(김성일)을 뵈고 이어서 시무(時務)를 의논하였다. 방백도 의병이 왜적을 토벌하는 데에 공(功)이 있는 것을 알고 의병 모집을 힘써 권하였다. 마침내 정경세(鄭經世), 권경호(權景虎), 신담(申譚)을 각각 상주(尙州), 함창(咸昌), 문경(聞慶) 세 고을의 소모관(召募官)으로 삼아서 관병(官兵)에 구애받지 말고 아울러 모집하도록 하였다. 또 전령(傳令)을 보내어 상주에는 군량미 50섬(石)·활 10장(丈)·장전(長箭) 및 편전(片箭) 각각 20부(部)를, 함창은 군량미 20섬을, 문경은 군량미 20섬과 활·화살은 모두 상주와 동일하게 하여 의병소에 지급하게 하며, 본영(本營)에 소장된 활 3장·장전과 편전 총 10부·총통(銃筒) 7부·능철(菱鐵) 500개(介)·철환(鐵丸) 500개를 보내 주었다.⁷⁵⁾

당시 김성일은 초유사로 5월 초에 함양에 도착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성일은 의병활동을 지원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조정자로 지휘력을 발휘하였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던 데에는 조식의 제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작동하였기 때문이었다.⁷⁶⁾ 조정과 상주에서 활동하던 의병은 관권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했고, 조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직임을 맡았다. 조정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지휘관으로서 김성일의 합리적인 판단 못지않게, 혼인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작동한 것이었다.

狀 方伯疾手開見 傾心採納 所控諸事 一一施行 夕飯而出 與曹察訪胤祉 同宿枕流亭 曹公金山人也 爲避兵火 客寓縣廨矣.

- 75) 『壬辰日記』下, 1592년 9월 1일 陰 早朝 入拜方伯 仍論時務 方伯亦知義兵之有圖於討賊 力勸召募 乃以鄭經世權景虎申譚 各爲其本邑召募官 勿拘官兵 並許招募 且傳令尙州軍糧米五十石 弓子十丈 長片箭各二十部 咸昌米二十石 聞慶米二十石 弓矢並如尙州 題給義兵所 本營所藏弓子三丈 長片箭並十部 銃筒七部 菱鐵五百介 鐵丸五百介見遺矣 朝飯後拜辭而出 因私故 不得發行 聞主倅鄭三變 都事金穎男 俱自陣所入來 兩君皆曾所知之人也 卽往相見 金公有膽略 亂後特選使募 來此屢當賊鋒免害云 夕與曹公同宿枕流亭 曹於尙牧爲五寸之親云 而數日接話 深言尙牧之失 寡助親叛 豈不信然方伯亦因曹公 備聞尙牧事 故深有憤疾之意矣.
- 76) 김학수, 「김성일의 입란 중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김성일과 임진왜란』, 보고사, 2019, 115~128쪽.

V. 맺음말

조정은 임진왜란에서 피란하는 가운데 일기를 남겼다. 본고는 조정의 일기를 통해서 전쟁 가운데 사대부의 일상과 가족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것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를 거치면서 자리잡은 사대부의 가족 관계의 실상을 볼 수 있었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세기 후반 사대부의 가족관계는 외가와 처가의 역할이 크게 작동하였다. 이런 가족관계는 기존에 통용되던 방식이었다. 주목할 점은 전란 이후에 이런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전란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사대부에게 처가와 외가 관계는 더욱 중요하게 작동하였다.

둘째, 전란 가운데에도 의례를 시행하는 일은 사대부의 일상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조정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식량을 얻으러 다니는 가운데에도 부모와 외조부모의 기제사와 각종의 절제를 빠짐없이 수행하였다. 의례는 친족의 결속을 도모하고, 사대부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셋째, 의병활동은 조정이 사회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조정의 의병활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혼인으로 획득한 친족관계가 의병과 같은 사회활동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조정이 의병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동했던 힘은 바로 혼인을 통해서 확보한 친족 네트워크였다. 이점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존재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대부는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사대부는 혼인을 통해 인적 관계망을 확대하였다. 혼인은 친족 내부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기회이기 때문이었다.

※ 이 논문은 2021년 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태종실록』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黔澗趙靖先生壬亂日記』,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豊壤趙氏世譜所 編, 『풍양조씨세보』, 2006.

『黔澗先生文集』, 경인문화사, 1997; 『黔澗先生文集』, 大譜社, 2008.

풍양조씨호군공파가규공중증 편, 『辰巳日記』, 2015.

조정, 『黔澗集』, 한국문집총간 61; 조익, 『可畦集』, 한국문집총간 속9.

장현광, 『旅軒集』, 한국문집총간 60.

김영 지음·황동권 외 옮김, 『계암일록』, 한국국학진흥원, 2013; 원문 이미지 제공,
한국국학진흥원(<http://diary.ugyo.net/>)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영남고문서집성』 1,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권태을, 「검간 조정의 한국문화사적 위상」, 『상주문화』 23, 2013.

김성우, 「임진왜란 초기 制勝方略戰法の 작동 방식과 상주 북천전투」, 『韓國史研究』 163, 2013.

김시황, 「검간 조정 선생의 생애와 사상」 『동방한문학』 16, 1999.

김유희, 「검간 조정선생의 불천위 제사에 나타난 문중의식」, 『상주문화』 19, 2009.

김정운, 「17~18세기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의 친족관계 연구-일기에 나타난 혼인과 제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김종태, 「黔澗 趙靖의 辰巳日錄 研究」, 성균관대학교 한문과 석사학위논문, 2009.

김학수, 「김성일의 임란 중 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김성일과 임진왜란』, 보고서, 2019.

우인수, 「임란시 상주 북천전투의 실상과 현창사업」, 『역사교육논집』 62, 2017.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정재훈, 『『보물 제1003호 조정 임진란기록 일괄-1.임진일기 상·하』 해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마르티나 도이힐러 자·이훈상 역,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Daily Lives and Families during War in Jo Jeong's(趙靖, 1555~1636) Diary

Kim, Jeong-un

Joseon witnessed huge changes between the latter half of the 16th and 17th century. People were making a leap in studies and national management, and they also faced tremendous risks caused by foreign invasions, which drove people into huge shock and changes in their thinking and daily lives. War caused shocking experiences for them. Many things were damaged and made anew.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se changes in the daily life of nobility during those years with a focus on Jo Jeong(1555~1636). He lived in Jangcheon, Sangju, Gyeongsang Province,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and held office as a government official. He left behind his journal of his daily life during the war.

The study focused on three aspects about him: first, it focuses on the unit and lifestyle of refugees to understand the minimum unit for survival; secondly, it focuses on the ways that people earned a living and held ceremonies during the war. Jo Jeong climbed over a mountain on foot and waited in line before a government warehouse all night to receive food rations, which was something he had never done in his life before the war. In these circumstances, he prepared fish and soup for ancestral rites. For him, formalities were related to his

survival. Finally, the study also focused on human networks and their operating methods. Jo Jeong joined the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based on his human network, and this was also his activity for social survival as a nobleman.

keywords :

Jo Jeong(趙靖, 1555~1636), 『Imjinilgi(壬辰日記)』,
Imjinwaeran(壬辰倭亂), family, army raised in the cause of justice

